그러나 원래의 강력한 아래턱은 그대로 보존되어 오늘에 이르며, 공격적이고 위압적인 외모와는 달리 침착하면서도 온순하다. [머리](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306&ref=y)가 크고, 아래턱이 위로 올라가 있으며, 안면부의 폭이 넓다. [이마](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4512&ref=y)는 평평하며, 주름이 있고, [주둥이](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2772&ref=y)는 매우 짧다. [코](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918&ref=y)는 위로 벌어져 있어 잠 잘 때 [코](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918&ref=y)를 심하게 곤다. [귀](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8393&ref=y)는 [머리](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306&ref=y) 윗부분에 위치하며 작고 엷다. 목은 굵고 짧으며 강인한 인상을 풍긴다. [등](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5667&ref=y)은 짧고, [어깨](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4551&ref=y) 폭이 넓은 반면, 허리는 약간 좁다. 가슴 폭이 아주 넓고,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짧고 튼튼하다. 꼬리는 굵지만, 길이가 짧고 끝은 가늘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강하며 뛰어난 귀가성을 간직하고 있다. 진돗개는 첫 정을 준 주인을 오랫동안 잊지 못해 강아지 때부터 기르지 않고 성견을 구입했을 경우 탈주 사태가 종종 일어난다. 또한 진돗개는 대담하고 용맹스럽기로 이름이 높다. 산 속에서 멧돼지 같은 맹수를 만나도 겁을 먹지 않고 덤벼든다. 야생동물을 물었을 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을 가지고 있다. 개들끼리 싸울때도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대형 견종과 맞붙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진돗개 고유의 능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수렵성이다. 외국 사냥개와 달리 특별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수렵견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한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여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견종들을 경계하며 특히 수컷을 좋아하지 않는다.